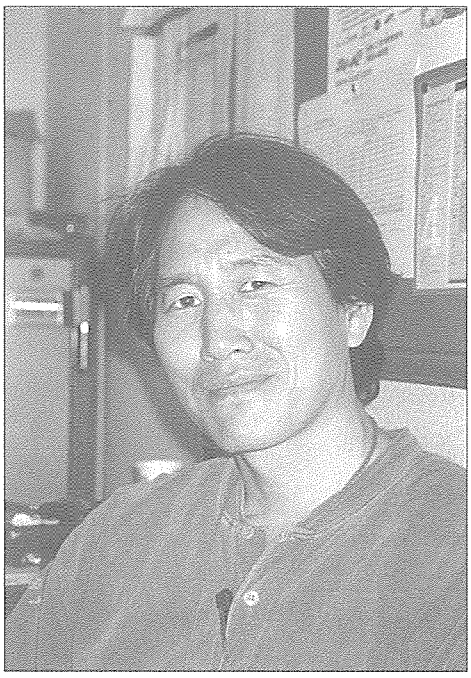
21세기 만화세상을 꿈꾸는 시사만화가 박재동

'천국의 신화'는 외설인가?…

검찰의 이현세 소환으로 만화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검찰의 만화죽이기에 아랑곳없이 다른 한 편에서는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을 개최하면서 만화업계 살리기에 전력 앞장서고 있다는데…

현재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박재동을 만나 그의 만화 인생과 만화계의 뜨거운 감자, 만화가 검찰 소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글 / 안정미 기자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의 조직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은 박재동 화백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열리는 KOEX 전시장에서 만난 박재동에게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머리카락이다. 전화를 받고 있는 뒷모습을 처음 본 기자는 머리카락의 하얌에 그의 나이 짐작에 혼선이 왔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머리카락의 하얌은 그가 얼마나 만화를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이의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의 사인 공세에 만화 캐릭터를 그려주고 일일이 이름까지 물어보며 사인을 해 주는 그의 모습은 전혀 자신의 인기값을 내세우지 않는 순수한 만화가 아저씨다.

만화가와의 인연은 자연스러운 만남

박재동은 만화와 깊은 인연을 가졌다. 어린 시절에 집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했고 중·고등학교 때에도 만화를 많이 그렸다. 자신의 이야기이자, 만화에 대한 이야기 〈만화! 내 사랑〉에는 만화가게 아들로서의 행복에 대해 묘사돼 있다.

이 책에 저자가 대수롭지 않게 묘사한 어릴적 상처 하나가 있다.

그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하루는 선생님이 방과후에 그를 불러 포스터를 하나 그리라고 했다. 주제는 만화가게 안 가기와 불량식품 안 사먹기. 커다란 모조지에 만화를 보고 있는 아이들과 오뎅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넣은 뒤, 그 위에다 까맣게 X표를 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만화가게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게 한 귀퉁이에서 풀빵을 굽고 팥빙수를 만들어 파셨으니 말이다.

그날 밤 그는 방에 나란히 누워 주무시던 아버지에게 우물쭈물 말을 꺼냈다.

"아부지요"

"와?"

"우리 만화방 안 하면 안 됩니꺼? 우리도 문방구 같은 거 하입시더."

"……돈이 있어야재."

그러나 이 작은 불행의 에피소드도 만화를 사랑하는 그의 행복에 묻혀버린다.

한겨레 그림판을 통해 시사만화가로 데뷔

그는 한겨레 신문에서 시사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했다. 그가 특별하게 만화수업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줄곧 그렸고 좋아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현재는 한겨레 그림판에서 손을 떼고 〈오돌또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캐릭터 창출, 스토리 제작 등 일인다역을 서슴없이 맡아 하면서 활기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재동의 한겨레 그림판을 모아 발행한 〈환상의 콤비〉중의 한 컷

오돌또기는 제주도 민요로서 내용은 해방 직후 제주도를 배경으로 좌우대립의 혼란기 속에서 양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한 사건을 소재로 어린이와 청년들의 삶을 그린 것이다. 지금은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맛보기 필름인 데모테잎을 제작중이다. 만화가 곧 삶인 그가 이것을 출발으로 애니메이션계에도 손을 뻗쳐 점차적으로 만화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나왔다. 그런데 그가 회화과를 지원한 이유도 만화과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만화에 대한 그의 열정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회화과를 졸업한 이후 그는 휘문고와 중경고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서 미술이라는 것이 너무 사회와 관객과 동떨어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 중에 관객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주제와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다보니 만화라는 것이 아주 유용하고 좋은 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검찰의 이현세 소환은 공소권의 남용

지난 7월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현세 사건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일축한다.

"검찰측에서는 이현세 씨 작품,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규정했는데요, 청소년용으로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선사시대로서 그 시대의 짐승과 같은 생활을 묘사한 것인데 그것을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용과 청소년용이 따로 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용을 음란물이라 규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의 손에 들어가 해로울 수도 있다고 말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식이라면 술과 담배도 청소년에게 전달되니 술제조업자나 담배인삼공사 사장도 소환해야 되겠네요."

이현세 소환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감정이 격해진 그는 이내 얼굴을 붉히며 열변을 토한다.

문화는 현행범죄가 아니다. 국민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문화를 바라보

"아부지요"
"와?"
"우리 만화방 안 하면 안 됩니꺼? 우리도 문방구 같은 거 하입시더."
"……돈이 있어야재."
그러나 이 작은 불행의 에피소드도 만화를 사랑하는 그의 행복에 묻혀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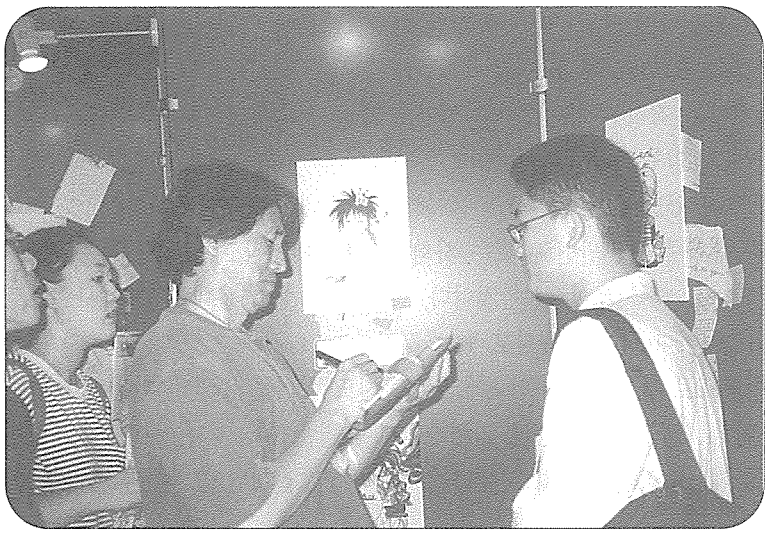
는 시각은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소수에 의해 문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 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아이들의 벗이 돼 주고 문화를 직접 창작하는 사람을 범죄자 비슷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작가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만화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이후진국에 머물러

웃국가인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만화산업은 많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일년에 22억권의 만화를 발행하는 반면 우리는 몇천만권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을 발행하기에 그 중에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죠. 양도



팬에게 만화를 그려주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자못 신중하다.

양이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나 요즘처럼 검찰에서 만화가를 함부로 오라가라 하는 문화에서는 양질의 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화는 문화사업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산업의 주역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데는 환호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만화가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는 작가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동기가 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만화의 시작은 늦었지만 뛰어난 작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작가의 숫자나 전체적인 만화문화의 수준은 일본이 앞서 있는 셈이다.

어린 청소년의 시각으로 따뜻하게 그리는 한 만화에 보람 느껴

겨레 그림판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할 시점에서 어떤 학부모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했다.

자신의 딸이 중학생인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하니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은 지 일주일이 됐다며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을 스크랩하여 주어도 별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 따뜻한 시각으로 그린 만화 하나가 그 청소년의 얼려있던 마음을 녹인 것이다. 만화내용은 지금은 비록 떠나지만 더 큰 거목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 만화를 보고 나서 밥도 먹고 학교도 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어른의 냉정한 시선, 자신의 문화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어른에 대한 좌절감, 이 가운데에서도 청소년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분명 그 청소년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다.

"2001년에 우리들이 보고 있을 만화가 상업주의에 편승한 작품일지, 예술성 높은 작품일지, 혹은 일본 만화일지, 우리 만화일지는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남아 있다."라며 그는 다가오는 21세기가 만화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한다.